

안식일의 주인 (막2:23~28)

- (23)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6)그가 아비아달 대제사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1.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꼭 드려야 한다고 배운 찬열이가 있습니다. 찬열이는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특별히 오늘은 예배 기도도 합니다.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길에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찬열이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고 가게되면 찬양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찬열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31:12~15), 민수기(15:32~36)를 살펴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안식일의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행동을 좋지 않게 보고 묻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물음에 예수님은 무어라 말씀하십니까?(25)
3. 마지막 28절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